‘3선 도전’ 서삼석 군수 대항마는?

정해균·김석원·김철주씨 등 공천경쟁 돌입

‘제자만 2만여명’ 임재택씨 다크호스 급부상

■무안군수 입지자

대중국 교두보로 성장하고 있는 무안군의 차기 단체장 자리에는 4일 현재까지 서삼석 현 군수에 맞서 정해균 전 여수 부시장, 김석원 전남도의원, 김철주 전남도의원이 먼저 도전장을 던졌다.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2월말 퇴직 후 민주당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임재택(60) 목포 문태고등학교 교장이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민주당 경선은 5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아직 출마 의사를 표시한 인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경선을 준비해온 양승일 전남도의원은 공천헌금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중이어서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나상옥(57) 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나 오는 7월 축협조합장 선거가 있어 불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한때 출마를 저울질했던 박봉래 전 무안군의회 의장도 “이제는 거의 접은 상태”라고 불출마 의사를 표시했다.

5명의 후보는 서로 친분과 갈등이 점철되는 묘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 군수와 김석원 도의원는 한때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친했던 사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서로 도왔지만 이번에는 일단 경쟁 관계로 만났다.

또 다른 3명의 후보는 서 군수와 정치적 라이벌인 이윤석 국회의원의 그늘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엄정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 전 부시장은 이 의원과 오래전부터 교감을 쌓아왔고 임 교장은 이 의원의 친형과 절친한 친구 사이다. 또 김철주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김홍업 전 의원을 도왔지만 이후 이 의원 사단에 합류했다. 정 전 부시장과 임 교장은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김석원 도의원은 임 교장의 외가 6촌 동생이라고 한다.

■무안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석원(43)	김철주(53)	서삼석(52)	임재택(60)	정해균(61)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입당예정	민주당
전남도의원	전남도의원	무안군수	목포 문태고 교장	전 여수부시장

서삼석 군수는 무안군 대표 축제인 ‘연꽃축제’를 산업화해 지난해만 168만불 수출계약을 맺는 등 기존 ‘축제=전시 행정’이란 고정 관념을 깼으며 스포츠 파크를 건설해 각종 선수단의 합숙 훈련을 유치하고 군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인사·공사 비리가 전무할 정도로 ‘클린 행정’의 본보기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특히 경선이 목전인데도 중국을 다녀오는 등 한중산단이 핵심인 기업도시 건설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서 군수는 열악한 무안의 산업구조 개선하기 위해 한중산단을 추진했으며 어려움이 많지만 반드시 성취해 내겠다는 각오로 3선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나아가 무안군 발전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무안공항 활성화 ▲남악신도시 인프라 정비 ▲무안시 승격 등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은 지난 6월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나 이전부터 선거를 대비하는 등 차분히 경쟁력을 갖춰온 도전자. 그는 지난 1969년 무안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전남도 회계과장·총무과장, 감사관, 나주 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는 등 후보군 중 유일한 행정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고 있다.

정 부시장은 “무안 발전을 위해 무안기업도시 계획을 조속히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곳의 토지거래 및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는 등 지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농·어·축산업의 단·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무안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안국제공항을 물류기지화해 침체돼 있는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 지역에 기업을 유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일보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석원 전남도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 지역구인 1선거구 외 지역에도 공을 들이며 출마를 준비해 왔다며 젊은 패기를 무기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고정 관념을 깬 구상으로 무안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김 의원은 무안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함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갯벌자원 및 영산강변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수심이 깊어 항만 입지 조건을 갖춘 해제 북쪽 지역에 대형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는 특히 “노령화된 무안군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농기계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 회사를 구축하도록 해 농기계 구입은 물론, 연료와 인건비 등의 예산보조를 통해 농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택 문태고 교장은 현역 군수와 행정전문가, 정치인으로 형성된 선거구도에 참신한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한 다크호스. 지난 1월부터 출마 행보를 하는 등 뒤늦게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인지도는 걱정 없다는 것이 임 후보의 생각이다. 선친이 무안 교육계에 평생 이바지했으며 본인도 30여년 간 무안과 목포 교육계를 통해 주민과 생활 속에서 접촉해왔다는 것이다. 제자만 2만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는 특히 교감·교장으로 22년간 근무하며 교육행정을 배운 것이 지방행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명한 행정과 화합하는 군정을 통해 ‘하나 되는 무안’ ▲농업과 어업의 특성화 및 기업 도시·무안 공항 등 신성장 동력원의 활성화를 통한 ‘성장하는 무안’ ▲경제와 문화적 발전, 생태와 연계한 지역 발전을 통한 삶의 질 고양으로 모두가 ‘행복한 무안’ 건설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철주 도의원은 재선으로 3선 대신 군수선거에 도전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의정활동 중 전 상임위를 거치면서 충분한 군정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는 “무안군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확립 및 수출 농산물 재배를 통한 국제적 경쟁력 재고로 소득이 창출되는 풍요한 농촌건설을 해야 한다”며 “교육 환경을 개선, 농어촌의 교통 문제의 원활화, 기초 생활보장제 강화, 기초 건강 확립을 위한 환경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군수 노리는 현역 의원 빈자리 각계 인사 10명 치열한 각축전

■도의원 입지자

2개 선거구에 10여명의 후보가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제 1선거구(무안읍·현경·망운·운남·해제면)의 경우 민주당에서 정선태 전 민주당 무안·신안지구당 상무위 부의장과 송만성 한국도덕운동협회 무안군지부장, 전양태 무안제일주유소 대표, 김영주 전 무안읍농협조합장, 양영복 무안군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민주노동당에서 현역 비례대표 전남도의원인 고송자 무안위원장이 도전에 나서다.

정선태 전 부의장은 지난 2002년 도의원 경선 결선에 올라 10표를 지고, 2006년에는 김석원 도의원의 공천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등 정치적 좌절로 절치부심했다. 하지만, 그는 “서민의 벗으로서 작은 약속도 지키는 의원이 되겠고 온갖 부조리와 잘못된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며 출마를 결심했다.

송만성 지부장도 4년 전 공천을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고 이번에 재도전했다. 시민사회운동과 정당 활동을 두루 경험한 송 지부장은 “풍요한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 탄소제로 도시를 건설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 유익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뒤늦게 출마의사를 밝힌 전양태 대표는 무안군 상공인회, 농업경영인 무안연합회, 무안군 로터리클럽 등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며 주민과 접촉해온 후보자. 그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우선시하고 무안을 진정 행복해지고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전 조합장은 정해균 군수후보를 돕고 있으나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재선의 양영복 무안군의원도 도의원 출마를 검토 중이나 군의원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민노당의 고송자 의원도 출마 뜻을 굳히고 사무실 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전해진다.

■무안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고송자(민노·61)	전남도의원
	김영주(민·52)	전 무안읍 농협조합장
	송만성(민·49)	한국도덕운동협 무안군지부장
	양영복(민·53)	무안군의원
2	고비호(민·44)	민주당 무안신안지역위 조직부장
	박인배(민·52)	민주당 무안신안지역위 사무국장
	정영덕(민·47)	민주당 전남도당 민주연합 특별위원회 무안회장
	홍금표(무·59)	무안기업도시건설지원 사업소장

제 2선거구(일로읍·몽탄·삼향·청계면)의 경우 박인배 민주당 무안신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홍금표 무안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정영덕(47) 민주당 전남도당 민주연합특별위원회 무안회장, 고비호 민주당 무안신안지역위원회 조직부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박인배 사무국장은 서삼석 군수 친구인자 측근 인사로 지난 총선 때 황호순 현 무안지역위원장 선거를 도왔다. 그는 “도청이전 이후 남악지역에 교육·복지·문화·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남악 이외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홍금표 소장은 2월말 퇴직 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잘 갖춰진 SOC 사업을 적극 활용, 신도청·국제공항·고속철도·기업도시 등을 조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영덕 회장은 전남도 도시계획전문위원을 20여년 해온 전문인 출신. 그는 “당리당략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발전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로서 보여주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고비호 조직부장은 출마를 고심 중이나 군의원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신춘식 일로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출마 권유를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①한중산단 건설 ·무안반도 통합

②이윤석 VS 황호순 ‘공천권’ 다툼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지역위원장〉

■쟁점&변수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에서는 서삼석 현 군수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한중산단(기업도시) 건설과 무안반도 통합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군수의 한중산단 건설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대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고 정부의 소극적 입장 때문에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자 다른 후보들이 공격을 하면서 쟁점화됐다.

정해균 전 여수부시장은 “처음에 규모가 너무 커서 무리가 됐다. 회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다. 수년간 시간만 보낼 것이다. 군에서 직접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또 중국정부가 할 의지가 있는지, 올 기업은 있는지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무안의 자랑인 쌀·양파·마늘·고구마 등 농업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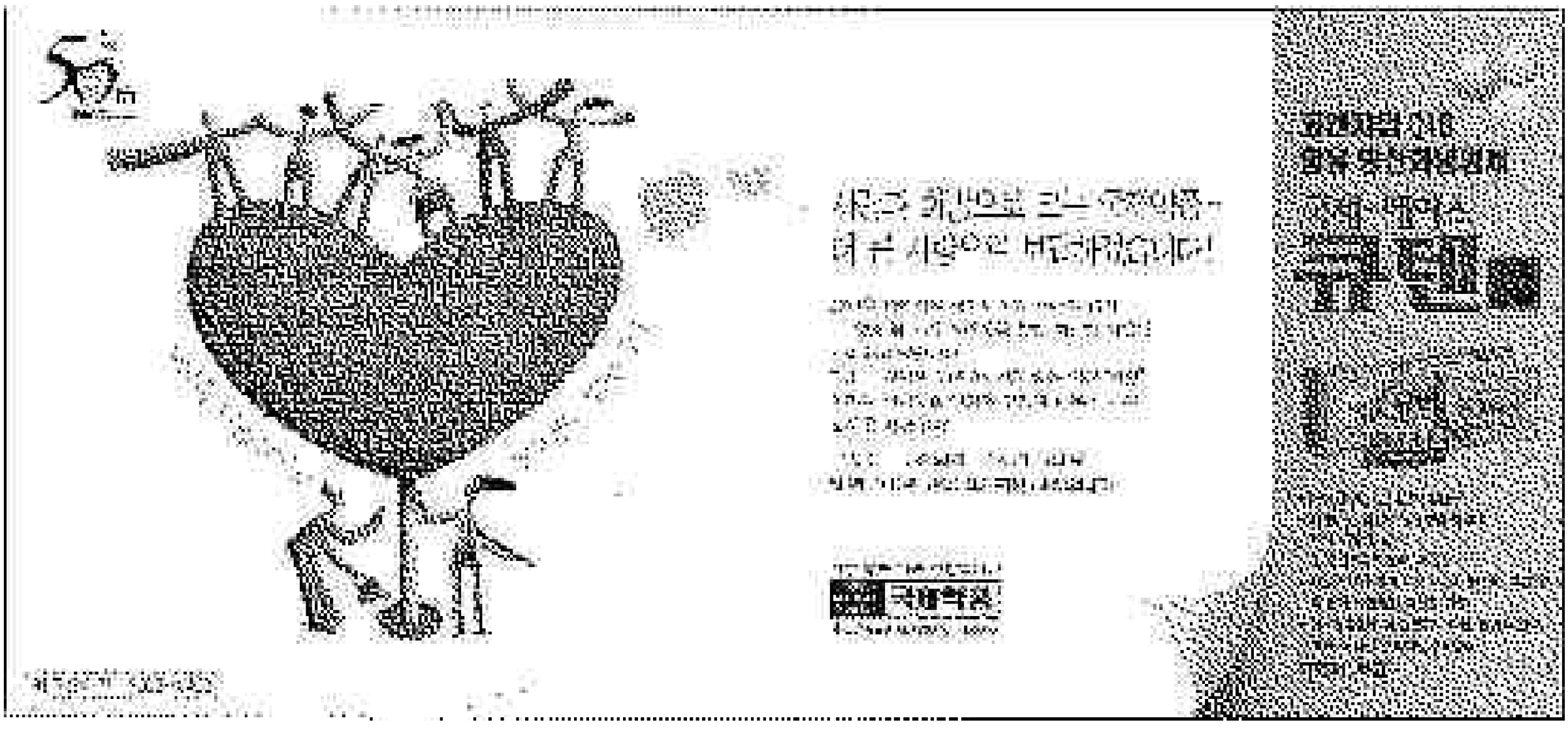
김석원 전남도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투명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비용내용과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5년간 안 된 이유를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군수 측은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 사용규모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공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또 축소하면서 제외된 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가급적 빨리 해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김석원 의원은 “지난해 반대운동을 할 때는 눈치만 보던 인사들이 이제 와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후보들의 반대가 대세인 것은 무안 인구 7만5천 명 중 반대가 강한 무안군과 해안가 면들의 인구는 51%, 남악 등 목포 인근 지역의 인구가 49%이기 때문. 또 남악의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으나 유권자 비율이 월등히 낮을 뿐 아니라 투표율도 낮은 지역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윤석 국회의원과 황호순 현 민주당 무안신안지역위원장의 공천권 다툼도 관심거리다. 공천 전까지 이 의원에게 지역위원장 직위가 옮겨지지 않을 경우 중앙당이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안군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